

## 교수정년식 송별사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반평생을 바쳐 교육과 연구, 봉사에 헌신하셨던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이신 서른 한 분의 선생님들께서 영광스러운 정년과 퇴임을 맞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동료와 후학들에게 학문적, 인격적 사표이셨고 오늘의 서울대학교를 일구신 분들이셨기에, 선생님들을 보내드리는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명옥	선생님,	이동렬	선생님,	안삼환	선생님,
임중대	선생님,	김문환	선생님,	이정복	선생님,
정운찬	선생님,	한상진	선생님,	류우익	선생님,
박성현	선생님,	정학성	선생님,	한경자	선생님,
이후철	선생님,	이호진	선생님,	김귀곤	선생님,
장병욱	선생님,	이은죽	선생님,	이창우	선생님,
이영순	선생님,	윤혜숙	선생님,	김유영	선생님,
최용	선생님,	조병규	선생님,	김성덕	선생님,
유병립	선생님,				

진심으로 선생님들의 영예로운 정년과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교에서 보내신 지난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서울대학교와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하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도전들에 기꺼이 맞서시면서 서울대학교가 의연한 자세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였고, 학문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열정과 노고 덕분에 우리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의 헌신적 기여와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오로지 학문과 후학 양성에 정진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사모님/사부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는 동안 학교에서 해 드리지 못한 것도 많아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학교와 학문이 날로 발전해 갈수록 선생님들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학적 예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아 있는 저희는 서울대학교를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나라와 인류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늘 큰 애정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학교에 자주 찾아오셔서 종전과 다름없이 높은 경륜과 지혜로써 저희들을 격려 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공적으로는 서울대학교를 떠나시지만 마음과 정신은 대학과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아름다운 추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우리들은 흐뭇하고 매우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 보람있는 일 많이 하시고 빛나는 업적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여러 선생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과 행운,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저희 모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서울대학교 총장 이장무

## 정년교수 대표 인사말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

존경하는 이장무 총장님, 임광수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전 총장님 여러분, 평의원회 의장님, 교수 협의회 회장님, 부총장님, 학장님, 처장님, 퇴임하는 저희들을 위해 이렇게 성대한 식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퇴임교수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락을 같이 해온 동료 교수 여러분, 사랑스런 제자 학생 여러분, 저희들의 연구와 교육을 뒷받침 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교직원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을 석별의 정으로 전송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가족, 친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뿌듯한 사랑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저는 1964년에 서울대 공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여, 68년에 졸업한 64학번입니다. 졸업 후 ROTC 6기로 군복무를 수행하였고 미국에 유학하여서는 통계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77년 8월에 모교가 관악으로 이사 하면서 처음 실시한 교수공채에 임용되어 33년을 교수로 봉직하고 오늘 퇴임의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대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3년간 교수생활 한 것을 합치면 36년을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다가 퇴직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보다 더 자랑스러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으며, 또한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이 각 학문 분야에서 그러하셨듯이, 저도 제가 전공하는 통계학이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1977년 8월 교수로서 관악 캠퍼스를 처음 찾았을 때 산 속에 들어선 이 관악

캠퍼스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모교 교수가 되었다는 저의 뿌듯함이 저의 눈을 더 긍정적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임 후 근 20년간의 관악 캠퍼스 생활은 보람도 많았지만 고뇌도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퇴임하시는 교수님들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출근하면 경찰과 학생간의 그칠 줄 모르는 대립과 충돌을 보면서 연구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차라리 전쟁터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입장은 난감, 번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선우중호 총장님을 모시고 학생처장을 하던 97-98년까지도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 데모를 하고 심지어는 본부를 점거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처장으로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밤을 세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아픈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고, 그 후 온 국민의 여망으로 민주화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학원이 안정되었고, 서울대가 국가발전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신기술과 신이론을 개발하며, 지식창출의 메카로 제 기능을 하는 상황에서 퇴임하게 되었으니 우리 퇴임 교수들은 너무나 큰 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77년도의 관악캠퍼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과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지난 30여년, 아니 60여년의 대한민국과 서울대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조국의 풍요함과 서울대의 발전은 과히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저로서는 이러한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서울대를 불러 쓰시기를 바라고 계시며, '대한민국과 서울대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시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오늘의 종합대학교들은 청소년 교육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이란 수단이 생기면서 국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늘어나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육이 청년기에 한하지 않고 평생 지속시켜야 할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대는 이 변화에 대해 이미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단과대학들이 사회인들을 상대로 최고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자연대 학장으로 있던 2001년에 자연대는 처음으로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 과정을 개설하였고, 벌써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서울대가 평생 교육 체계를 더 체계화하고,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인 교육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장무 총장님께서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신 것도 서울대의 국제화이며 이미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만간 국제 캠퍼스도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상대하는 대학 중의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조만간 서울대에 평생교육원이 출범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대는 1946년 개교 이래 오래 동안 서울대의 장기발전 비전으로 “겨레의 대학, 학문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설정하여 왔습니다. 그 의미를 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겨레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려는 자세와 넓은 도량과 인품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겨레의 대학입니다. 미래의 진정한 지도자는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대학은 이러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겨레의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21세기 선진 한국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선진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대는 새로운 지

식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학문의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서울대는 지식을 넘어 지혜를 창출해 내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오늘날은 세계가 하나로 지구촌화되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서울대는 세계 초일류대학의 대열에 동참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서울대는 세계의 우수한 젊은 이들이 그들의 학문연마와 인격도야의 터전으로서 선호하는 세계의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서울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인 21세기에 학문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IT, BT, NT, CT 등의 융합과학, 통섭학문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 간의 벽을 넘나드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R&D 자금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융합과학단, 나노융합단, 문화융복합단을 만들어 연구개발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도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을 설립하여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교육연구기관들의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와 융합의 영역을 더욱 넓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양 근대의 대철학자 칸트는 창의를 서로 다른 두 개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억해 둘만한 명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PC 보급 후에 광범하게 형성된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세계는 갈수록 학문의 세계도 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가 세계의 학문을 주도하는 선도적 대학그룹에 속하려면 이 빠른 변화를 신속 정확하게 읽고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신 학문지도, 신 과학지도, 신 기술지도를 계속 그려나가 젊은 후학들로 하여금 빠른 지평을 열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가까이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일을 맡아 보면서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교를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로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법인화 준비 작업에 참여하여 주신 교수님들, 힘을 보태주신 내외 귀빈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국립대학 서울대학교 체제는 1946년 개교와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과거에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훌륭한 제도였으나, 이제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하기에는 정부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 체제가 갖는 경직성과 비효율성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서울대는 직원을 한명 채용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하여 공무원 채용 규정을 맞춰야 하며, 예산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당초 교과부가 지정한 항목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고, 수익사업을 하면 수익금은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체제 하에서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 훌륭한 교직원의 임용 등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대학들과의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법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학의 법인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우수대학들은 모두 법인체이며, 최근 아시아에서도 일본 국립대학들, 싱가포르국립대, 중국의 대학들도 법인화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상위권 대학 중에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대학은 없습니다. 대학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서울대, 아니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국립대학들이 법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매년 천명이 넘는 동창생들이 롯데 호텔 그랜드 홀을 짝 메운 대성황을 보았습니다. 이

는 임광수 동창회장님의 리더십 이외에도 서울대 동창들의 모교사랑하기가 날로 두터워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대 학생회관 옆 식당의 벽에는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들어 관약을 보게 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같이 관약을 보면서 조국이 나아가는 길을 묻고, “겨레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서울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퇴임 교수 일동은 조국이 선진국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활동을 접고 물러나게 된 것은 서운한 일이지만 유능한 후학들이 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마음 놓고 이제 떠나려 합니다. 서울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조국을 이끌 유능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세계를 변화시킬 많은 연구업적이 창출되기를 기원합니다. 관약을 늘 마음에 두면서 모교를 위해,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 2. 25